되풀이되는 신설학교 '공사판 등교'

나주 3개 초·중 입학식 미루거나 더부살이 수업 불가피

학생 중장비 피해 이동…새 비품 오염농도 줄이기도 안돼

나주시교육지원청은 2일로 예정했던 라온·한아름초교와 금천중 입학식 일정을 6일로 늦춘다는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최근 보냈다. 3월 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학교 건립 공사가 늦어지면서다. 당분간, 학생들은 학교 내부에서조차 펜스가 둘러쳐진 '공사판' 을 피해 교실로 들어가야 한다. 그나마 한아름초 학생들 248명은 6월까지 라온초에 '더부살이' 까지 해야 하는 처지다.

초·중학교가 개학을 앞두고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불편을 겪게 됐다. 특히 학교 신설 때마다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무신경함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해 신설되거나 새롭게 부지를 마련, 건설중인 나주지역 3개 초·중학교는 개학이 다가왔지만 학교 건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학생들이 미흡한 통학로 안전 대책, 불편한 교통 대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라온초 학생 207명과 금천중 195명은 운동장에 가득한 공사 자재, 차량 중장비 등을 피해 교실로 이동해야 하는 형편이다. 한아름초 학생들은 그나마 6월까지 차량으로 라온초까지 옮겨 가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라온초의 경우 공사 지연으로 준공 시기가 4월로 늦춰졌다. 금천중도 5월에야 이설 공사가 마무리, 준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아름초는 아예 6월 이후로 잡혀있는 상태다. 화창한 봄날, 운동장에서 받을 수 있는 체육 수업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됐다. 나주 라온유치원과 순천 정원유치원도 3월 20일께 준공 예정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원아들 교육을 진행중이다.

또 라온초와 금천중은 지난달 27~28일 870개의 책걸상을 들여왔고 152개의 사물함을 들여놨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책걸상, 사물함 등 교실 비품을 들여온 뒤 일정 기간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 오염 물질 농도를 줄이도록 하는 등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 당국이 어린 학생들과 교직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에도 나주 빛누리초교가 개교를 앞두고 공사가 지연, 학생들 불편이 잇따르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 현재 교육부로부터 학교 건립 예산을 확보한 뒤 부지 매입, 공사 계약·발주를 거쳐 착공, 준공하기까지 36개월 안에 이뤄지는 학교 신설 절차를 공사 현실 등을 감안해 조정, 학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나주시교육지원청은 3일부터 10일까지 등하굣길 유치원·초등학생들을 감안, 20명의 직원들을 안전 요원으로 배치키로 했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달 내 이사진 구성하라"

교육부, 조선대에 최후 통첩

교육부가 차기 이사진 구성에 실패한 조선대학교에 한달 내로 이사진을 구성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2일 조선대 이사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인 이사회에 임원취임 승인 취소 공문을 보내 4월 1일까지 차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

조선대는 한 달 안에 새 이사진을 구성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조선대가 임시이사 체제가 되면 지난 2010년 정이사 체제 출범 뒤 7년여만에 불명예를 다시 안아야 하는 셈이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달 25일로 이사들의 임기가 끝났지만 교수·직원·총동창회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법인 이사회 간 이견으로 개방이사 추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전남 주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주말 광주에서는 18차 촛불집회가 열린다. 같은 날 오후 전남에서도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진행된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광주본부)는 4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18차 광주시국촛불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금남로 일원에서 문화공연 등 사전행사를 열고, 촛불집회에 이어 오후 8시부터 행진과 마무리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해빙기 도로 보수 겨우내 얼어 붙었던 땅이 서서히 풀리면서 도로가 파손돼 움푹 파인 '포트홀'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다. 2일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문흥동의 한 도로에서 포트홀을 메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전남 시민단체-교육장 진실 공방

비리의혹 제기하며 사퇴 촉구…"법적 대응" 반발

전남 시민단체가 모 교육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해당 교육장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2일 모 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의혹인 자를 지역 교육 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교육장이 도교육청 과장으로 재직 시 법인카드 카드깡 의혹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면서 비리 의혹에 대한 해소 노력도 없이 교육장으로 임용한 도교육청의 인사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해당 교육장은 이와관련, 시민단체 등의 비리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장은 "카드깡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대라고 전교조에 요구했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명예를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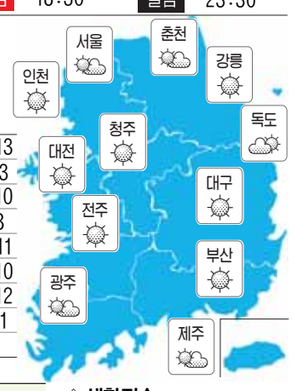
해뜸 07:00 해짐 18:30 달뜸 09:57 달짐 23:30

일교차 커요

낮부터 기온이 올라 다시 포근해지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은 뒤 흐림	-2/13	보 성	맑은 뒤 흐림	-3/13
목 포	맑은 뒤 흐림	0/10	순 천	맑은 뒤 흐림	0/13
여 수	맑은 뒤 흐림	0/12	영 광	맑은 뒤 흐림	-5/10
나 주	맑은 뒤 흐림	-4/12	진 도	맑은 뒤 흐림	2/8
완 도	맑은 뒤 흐림	1/13	전 주	맑음	-3/11
구 례	맑은 뒤 흐림	-4/12	군 산	맑음	-3/10
강 진	맑은 뒤 흐림	-2/12	남 원	맑음	-6/12
해 남	맑은 뒤 흐림	-3/11	흑산도	맑은 뒤 흐림	3/11
장 성	맑은 뒤 흐림	-4/1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	남서~서	0.5~1.0
	먼바다	남서~서	1.5~2.5	남~남서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남서~서	0.5
	먼바다(동)	북서~북	1.5~2.5	남서~서	0.5~1.5
	먼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0~1.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31	05:26
	22:51	17:41
여수	05:58	00:03
	18:23	12:16

◇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매우높음
체감온도	관심

◇ 주간 날씨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10(금)
0/11	2/13	0/7	0/8	0/9	0/10	0/12

5월 대구에 알리는 '80년 5월 광주'

한달간 5·18재단 주최 첫 전시…부산·서울 등 전국 순회

1980년 5월 그날의 참상을 다룬 5·18 기념재단의 전시가 올 봄 대구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오는 5월 대구시청사 로비 또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5·18 전시회를 열기로 대구시와 이날 협의를 마쳤다. 5·18민중항쟁을 다룬 전시회가 그동안 민간단체 차원에서 대구에서 개최된 적은 더러 있었지만, 5·18기념재단 주최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는 장소 협조는 물론 전시회 공동주최 또는 후원 명칭도 넣기로 5·18재단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재단이 선보일 전시회의 명칭은 '5·18 위대한 유산, 5·18 위대한 연대'다. 5·18 위대한 유산은 5·18 당시 광주에서 활약했던 기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의 참상을 담아낸 사진기록<사진>들이 기본 콘텐츠다. 공수부대원이 곤봉으로 시민을 구타하는 장면, 시민들이 부상한 시민을 들 것으로 옮기는 모습, 공수부대원들이 민주화를 외친 시민들을 속옷만 입힌 채 꿇려 앉히고 위협하는 현장 등이 담긴 100여개의 사진작품은 광주에 투입됐던 국군의 잔학성과 민주화를 위해 떨치고 일어섰던 광주시민들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5·18 위대한 연대는 5·18 직후 광주의 참상을 접한 유럽 및 미국 교포들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광주를 위해 연대활동을 벌인 사진과 그들의 시위를 기록한 현지 신문들을 작품화한 전시다. 독일 교민들이 1980년 5월부터 "전두환 퇴진, 학살자 처벌", "광주의 아픔을 함께 합니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베를린 가두시위에 나선 모습을 담은 사진과 현지 신문 50여점이 선보인다.

5·18재단은 5월부터 대구를 비롯해 부산, 충남, 서울 등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5·18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의 참상을 다룬 전시회가 민간 차원에서 대구에서 열린 적은 더러 있으나 5·18재단과 대구시가 손잡고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시회를 통해 5·18의 진실이 대구시민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